독일 함부르크 9월15일~10월19일 '한국의 달'

독일포교 '열린마당'

교불련 문화사절단 파견…세미나·영산재등 기획 다채

북돋기 캠페인도

우리 전통문화를 이끌어온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예술이 오는 9월 독일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려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한국불교의 홍포에 새로운 계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불교문화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세계불교문화사절단(증명법사 혜암)을 만들어 오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독일 함부르크 주정부가 제정한 '한국의 달'(9월15일~10월19일 한달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이번 행사에는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이 설법하는 대법회(9월 16일)를 시작으로 '21세기와 한국불교의 역할' 주제의 국제불교학술회의, 영산재, 다례 시연, 찬불가, 선무(禪舞)등 문화공연, 사찰음식소개, 불교전시회 등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일주일간 마련된다.

함부르크大 대강의실에서 9월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세미나는 첫날인 17일에는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과)의 '한국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웨너 사쎄교수(함부르크대 한국학)가 '독일인이 본 민족종교로서의 한국불교'를 기조발제로 선정문화, 조형, 차문화, 불교설화, 불교음악,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게된다. 18일에는 한국불교와 제반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주제발표가, 19일에는 범주스님의 '선예술의 현대적 의의'를 기조발제로 민화 의상 선무 그래픽 상징마크 등 문화예술관련 세미나가 준비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타 여연스님, 고준환 홍윤식 이준 류종민 연기영교수 등 한국과 독일의 학자·스님 총 20여명이 참여할 예정.

15일과 16일에는 한국불교문화예술단에 의해 화려하고도 장엄한 문화예술 각 분야가 집중 소개돼, 독일인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인 마일운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10여명이 참여하는 영산재 시연, 찬불가 공연, 가야금병창및 연주와, 이선옥씨의 선무와 범주스님의 선묵화, 박찬수씨의 불상제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도 이색 볼거리. 불화이미지를 현대의상에 접합시킨 불교의상패션(이기향)쇼도 갈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주스님 선묵전, 한국화전, 관조·선암 스님·안장헌씨 등의 사진전, 시각디자인전 등 각 불교관련 전시회와 차례(茶禮), 사찰음식, 발우공양 시연 등의 문화행사가 열리며 현지인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도 실시된다.

이번 한국불교문화예술제 행사에서는 북한동포돕기 캠페인도 함께 벌어질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일면스님 염불 CD 발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한 일면스님(불암사 주지)이 독경 테이프와 CD를 펴 냈다. 청아하고 장중한 염불소리가 일품인 일면스님의 經 테이프와 CD에는 〈천수경〉〈예불〉〈반야심경〉〈화엄경약찬게〉 등이 실렸다. 특히 〈불설아미타경〉은 종인·보명스님이 합송해 이채롭다.

"문화재는 공유할때 가치 더해"

금속공예전 연 대호고미술전시관 대표 주기상씨

"문화재란 비록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만인이 공유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개인 화랑 단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속공예종합전'을 연 대호고미술전시관 대표 주기상씨(46·고미술협회 부회장). 14일까지 서울 답십리 대호고미술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그가 25년간 수집해온 불상, 불교의식구, 청동기 등 유물 500여점이 선보인다. 이 중에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특수한 양식의 미술품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불상을 비롯, 통일신라시대의 이불병립상, 고려시대의 청동탑, 청동탁, 청동향로 등 보물급으로 평가되는 희귀한 공예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주씨는 "불교미술품이 주류를 이루는 금속공예품은 다른 미술품에 비해 현존하는 유물이 적고, 산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 독자적인 전시회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전시회는 우리의 금속공예 수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주씨는 전시회와 함께 소장품을 도록으로 발간해 한 개인의 힘으로는 드물게 우리의 금속공예를 집성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수집하기 어려운 금동불상과 함께 그에 따르는 불기(佛器), 불구(佛具)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 295점을 칼라로 실었다.

윤기석 기자

◇통일신라시대 '금동약사보살입상'(높이 15㎝). 이번 금속공예전에 나오는 대표적 불상이다.

불교문학 정의·유형 분석

홍기삼교수 '불교문학연구' 펴내

"불교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많지만 과연 불교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준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책은 문학이라는 심미적 추구의 세계와 불교라는 종교적 엄숙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불교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와 다른 문학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습니다"

문학평론가인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한국문학연구소장)가 불교문학의 심미적 형성원리를 모색한 논문들과 대표적 불교문학인 삼국유사의 향가관련 설화를 주축으로 불교적 성격을 밝힌 〈불교문학연구〉를 펴 냈다(집문당刊). 불교문학의 원리를 밝힌 책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제 1부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에서는 불교문학의 정의와 근본원리를 밝혔고 헷세 니체 슐레겔 등 훌륭한 불교문학자를 배출해온 독일불교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또 서정주 한용운 조지훈 등으로부터 김광섭까지 불교적 정서로 창작한 한국 현대 시의 세계도 훑어보았다.

2부 향가설화의 불교적 양상에서는 지금까지 향가자체에만 치우쳐왔던 분석을 보다 확대해 향가가 자리해 있는 설화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향가만을 따로 살필 것이 아니라 설화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읽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 "기존의 향가 해석도 부분적으로 많이 수정했다"고 밝힌다.

"불교문학이 시대에 뒤진 관념적이고 비생산적인 문학인가, 진부한 인식의 산물인가 하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불교문학의 세계성도 검토했다"고 말하는 홍기삼교수는 일본 법정대에서 '한일문화기금'의 지원으로 '재일 한국인문학에 미친 전후 일본문학의 영향' 주제의 연구를 위해 지난 3일 일본으로 떠났다. 〈경〉

문화 소식

김영임씨 '회심곡' 발표

국악인 김영임씨가 '97 김영임 회심곡'이라는 앨범을 제작하고 발매기념 발표회를 21일 호암아트홀에서 갖는다. 이번 회심곡 앨범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는 등 한글세대에 맞게 기획 제작됐다.

12·13일 홍성 만해제

만해스님을 기리는 지역문화축제인 제3회 만해제가 12·13일 양일간 충남 홍성에서 열린다.

전야제인 만해문학의 밤과 고유제 추모법회, 농악경연대회, 만해어린이 사생대회, 서예휘호대회, 백일장, 만해특별기획전 등이 개최된다. (0451)32-3613

고영을씨 탱화 40점 전시

고영을씨(광주여고 교사)의 탱화 전시회가 14일까지 대구갤러리 실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씨 특유의 탱화기법을 이용해 그린 '화엄경 이야기' '연'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053)426-8912

불심시심 〈89〉

나를 위해 늦봄에 핀 꽃

默對靑山坐 (묵대청산좌)	조용히 푸른 산 마주하고 앉으니
山嫌白髮來 (산혐백발래)	산은 백발이 왔다고 싫어하나
巖前一朶花 (암전일타화)	바위 앞 한 떨기 꽃은
慰我晩春開 (위아만춘개)	나를 위로하려 늦봄에 피었구나

천경대사의 시이다. '괴정에서 우연히 읊다(槐亭偶吟)'라 한 시이다. 늙은 괴목 앞에서 우연히 대하게 된 한 순간의 광경을 그저 버릇처럼 사진기를 들이대는 한 풍경화 촬영사처럼 다가가고 있다. 전편에서 아무 꾸밈이 없는 그저 소박함이 넘쳐난다. 시의 소재라야 나와 청산 그리고 꽃 뿐이다. 지나던 나그네가 정자에 올랐을 때의 한 순간으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상의 풍경들이다.

정자에 오르면 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정자가 있는 위치의 일상적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정자의 속성이라기보다도 사람의 거처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앞을 바라보다라는 말 자체가 산 아니면 물이다. 정자가 물가나 산 언덕에 세워지는 것이 정석이라 한다면 거기에 머무는 나그네의 시선은 아래로 보면 물이요 마주 보거나 위로 보면 산이다. 지금 이 시의 첫 구에서 조용히 청산을 보고 앉았다 함은 이러한 나그네의 일상성이다. 다만 조용히 앉았다 함이 의도적 묵상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용히라는 한 마디가 이 시의 꾸밈없는 소박함을 전제로 아주 중요한 한 자이다.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산이다. 그저 무심인데, 이 무심을 유심의 의도로 대해 주는 청산이다. 백발이 왔다 하여 싫어한다는 것이다. 유정의 나는 무심이 되어 있고, 무정의 산이 오히려 유심한 주체가 되었으니 이 또한 역설의 극치다. 이런 광경을 연민스럽게 여기는 한 떨기의 꽃이 나를 위로하고 나섰다. 이미 봄이 다 지나 모든 꽃이 사라지는 계절인데, 철 늦음을 잊고 피어있는 것이다. 꽃으로서야 늦다 이르다는 생각 없이 피어 있는 것이지만, 산에게 푸대접을 받은 나로서는 이 철 늦은 꽃이 어느 때보다 반가웠고 그 반가움으로 바로 지금 이 산의 푸대접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저 피어 있음으로 해서 꽃일 수밖에 없는 저 무정물을 이제는 내가 나의 서글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괴수나무 정자라 하였으니 여기의 꽃이 괴수나무꽃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 꽃은 늦봄보다는 초여름에 피는 것이 당연하니 그런 점에서 이 꽃 또한 일상의 개화이다. 이렇듯 일상의 평범함을 순간의 유의적 각별한 순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선사들의 평상심이 진리라는 깨우침의 자세요, 시인의 안목으로는 일상사 모든 것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환형시키는 예술적 솜씨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미술강좌모임 불교문화 배움터

"유산에 깃든 불교정신 탐구"

회원 40여명 동참
격주실시…전문강사 초청

문화 기행을 가면 갈수록 불교미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심해지고… 이 갈증을 원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의 불교문화기행팀이 불교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자발적으로 미술강좌모임 '불교문화의 배움터'를 만들어 화제다.

5월2일 발기인모임을 갖고 6월 5일 대학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처음 가진 '한국의 불화' 강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회원들이 박도화씨(동국대 박물관 연구원)의 '불화(佛畵)' 강의를 놓칠세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필기를 하고 있다.

"답사를 다니면서 개론적인 설명을 듣다보면 그 문화재에 대해 더 알고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져 미술공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장 구춘서씨의 말이다.

강좌의 목적은 현학적 해설보다는 그 문화재에 스며있는 불교정신을 세세하게 탐구하며 체계적으로 공부하자는 것. 격주로 개최되는 이 강좌는 첫번째 목요일(오후7시)은 불교미술전문가 초청강의, 세번째 목요일은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원장이 사찰속에 깃든 의미를 자세히 안내한다. '불화'강좌는 3개월간 실시될 예정.

'불교문화의 배움터' 회원중에는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여럿이다. 당장이라도 답사팀을 이끌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배움에의 열기는 무엇보다도 뜨겁다.

이동은(동국대 자료실) 회원은 "우리 불교미술에 나타난 조형정신을 제대로 아는 것은 현대를 사는 불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다. 〈숙〉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
이 책을 읽는 순간 내가 한국인 임이 자랑스럽다!

「일본의 천황이 된 가야의 응신왕자와 인덕왕자!」

일본을 정복한 한국인 이야기

프랭크호소노/신동란역

미국 인류학자 프랑크 호소노가 정확한 고증으로 쓴 장편소설!
14 년간 한.일간을 오가며 고대사를 연구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발굴을 금지한 응신고분과 인덕고분의 비밀을 풀어준다!

가야의 신왕에게는 용감한 응신과 인덕 두 왕자가 있었다.
신라의 대군에 가야가 멸망하자 응신과 인덕왕자는 가야의
철기문화와 정예 기마군단을 이끌고 원시 석기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가야의 속국인 동쪽 섬나라를 정벌하여
토요우라, 이즈모, 여마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 나라를 세워
천황으로 등극,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정가 7,000원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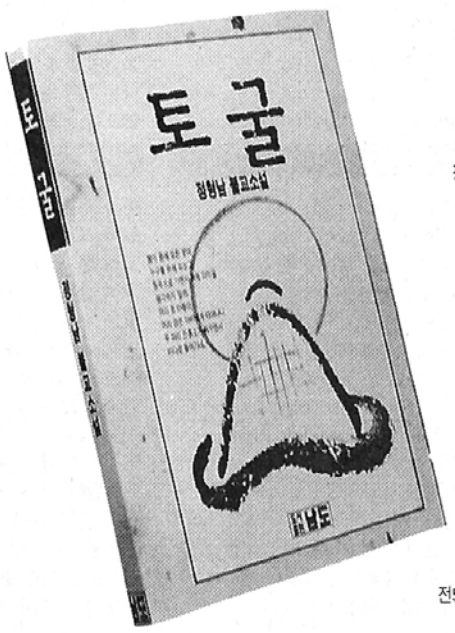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정형남장편소설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각자인 금강산 도인의 일대기!

정형남 불교소설 정가 7,000원

토굴



큰 두상을 갖고 황소울음을 울며 태어난 스님은 일제의 강점기에 시달리며 헐벗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비분강개, 군인이 되려하나 여의치 않아 승문으로 들어간다.
불교계의 거목인 스님의 행적은 민족을 걱정하는 한 인간으로, 해탈자로 우리 민족사상의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자비로움이 가득한 금강도인의 숨겨진 행보를 찾아!

1,000일 밤을 지새우게 하는 은밀한 책-한국판 천일야화!

정형남 장편소설 전5권 각 6,500원

여인의 새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